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4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3호

임동원 특사, 평양으로 출발

방북 인사말을 발표하는 임동원특사

임동원 특사가 3일 오전 10시 서울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서울 출발에 앞서 임 특사는 오전 8시 30분경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 10여분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임 특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평양에 갑니다≫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특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전 9시경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서울 공항으로 출발했다.

한편, 오늘 평양으로 출발한 임 특사는 첫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 위원장과 첫 회담을 갖는 등 2박 3일간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03

전 민족적인 반미반전투쟁에 민족의 전도가 달렸다

≪로동신문≫ 2일부는 그 어떤 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불타는 념원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민족의 앞길을 가로 막을수 없으며 반미, 반전, 반핵, 평화통일의 기치높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합류하는 민족적단합의 거세찬 진군을 멈춰 세울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땅에서 핵전쟁을 막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해야 할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조선사람자신이며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재난을 막아 줄수 없다.

미제호전광들이 상용무기로든 핵무기로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부득불 자위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가 론의될수 없다.

미제가 ≪핵우산≫으로 누구를 ≪보호≫한다고 떠드는것은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며 조선민족을 핵전쟁의 제물로 만들려는 간교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론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안녕과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자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은 ≪벗≫도 ≪보호자≫도 아니고 간악한 침략자이며 전쟁의 ≪억제력≫이 아니라 전쟁, 핵전쟁의 화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조성된것은 남조선이 미제의 핵기지로 되고 있기때문이다.

리회창과 같은 극우익보수세력과 반통일호전세력들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로, 민족을 핵전쟁의 제물로 섬겨 바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나라안에 이런 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침략세력을 내쫓을수도 없고 핵전쟁위험도 막을수 없다.

론설은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04/02

≪아리랑≫ 오는 10일 최종완성

오는 29일부터 두 달간 평양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공연될 ≪아리랑≫이 10일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했다.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4월 말부터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이 5월1일경기장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는 바 공연은 더욱 세련되어 가고 있다≫며 ≪아리랑≫공연준비위원회의 말을 인용, 10일에는 다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28일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 대통령 악단에 공개된 종합연습에서는 과반수의 장면들이 상연되었다며 지난 14일 조선신보에 단독 공개됐을 때보다 더욱 화려한 평양의 야경을 펼쳐 놓았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공연장면과 관련해 ≪≪이선남폭포≫ 중에서 선남, 선녀가 국부조명(스포트라이트)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른쪽)에서 내려 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 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지는 장면, 또 ≪두만강을 넘어≫ 중에서 1천수백명 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하는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종합연습의 일부가 이북을 방문한 ≪아리랑≫관광 시찰단들에게 공개되었는데 한 장면에서는 배경대가 그리는 대동강앞에서 분수가 높이 오르는 장면이 연출돼 까다로운 장치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소개했다.

오는 10일에는 하늘을 날아 다니는 처녀를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모두 완성된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로이터, BBC, NHK를 비롯한 9개 나라 언론보도기관과 중국국제여행총사 대표들이 관람했으며 30일에는 중국 단둥(丹東)시 인민정부 대표단 등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2/04/03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7)

4 세기와더불어
- 5장 3절 무장에는 무장으로(3)

5 칭송
- 한번에 네가지, 다섯가지 일을 동시에
- 목란꽃
- 회고록 160여개 나라에서 애독

6 구국의 소리
- 그날의 기개 되살려 반미투쟁에 나서자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2일
- 미국전투기, 누구에게 필요한가
- 의정부 미군기지신설에 반발
-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단합의 대헌장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2일 보도
-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1)

11 평양방송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영도력을 지니신 영도의 거장

12 아리랑뉴스
- 임동원특보 특사파견과 관련한 통일연대논평
- 임동원특사 파견에 대하여
- 임동원특사 방북 출발인사
- 현 정세와 아리랑 축전의 의의
- (사)한민족아리랑협의회 상임이사 인터뷰
- F-X의혹 반드시 규명한다
- 미완의 협상, 발전파업은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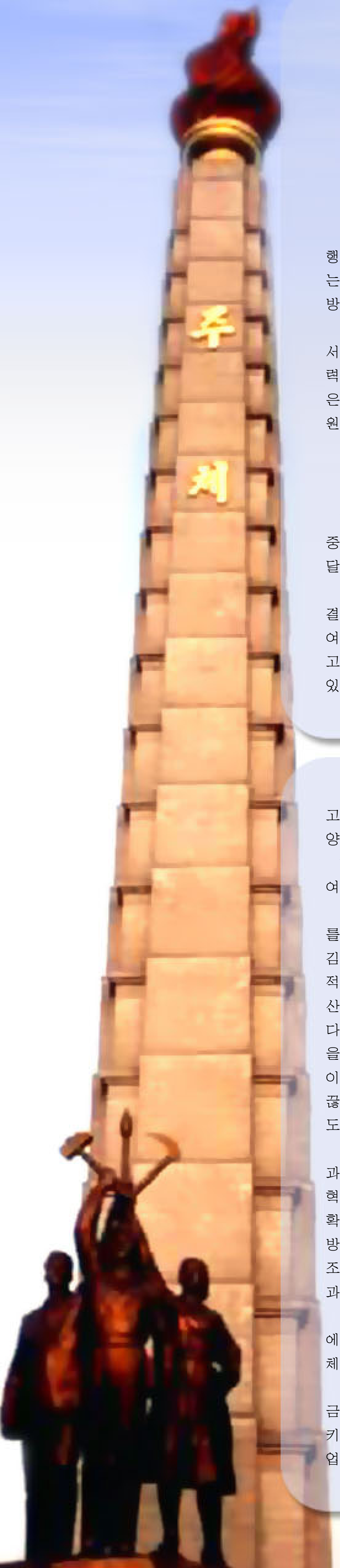
14

15 운동강좌
-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
-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
-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방도

16 조국통일3대헌장
- 90년대통일에로 (1)

주체사상에 대하여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2)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혁명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 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 데서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 역량인 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는 옳은 노선과 방침을 세울 수 있으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할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옳게 반영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주관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킬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노선과 방침을 세울 뿐 아니라 그것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모든 노선과 방침은 결국 인민대중에 의하여 관철되고 실현됩니다. 인민대중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수행방도를 알게 될 때 당정책을 사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하게 됩니다. 인민대중에게 파악되지 못한 노선과 방침은 생활에서 큰 힘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습니다. 대중은 하나로 굳게 단결되었을 때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자면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옳게 결합시켜야 합니다.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군중노선을 옳게 관철해 나가야 적대적 요소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계급적 진지를 튼튼히 꾸릴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면 대중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마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적 운동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군중적 운동은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 방법이며 대중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 방법입니다. 군중적 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반대하고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군중적 투쟁을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노선과 방침이 있어도 혁명적 사업방법이 없으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입니다. 이 사업방법은 늘 군중 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요해하여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위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이 사업방법은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대중이 온갖 창의 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체의 사업방법은 돈과 채찍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나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 전이나 잡은 다음이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혁명적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집권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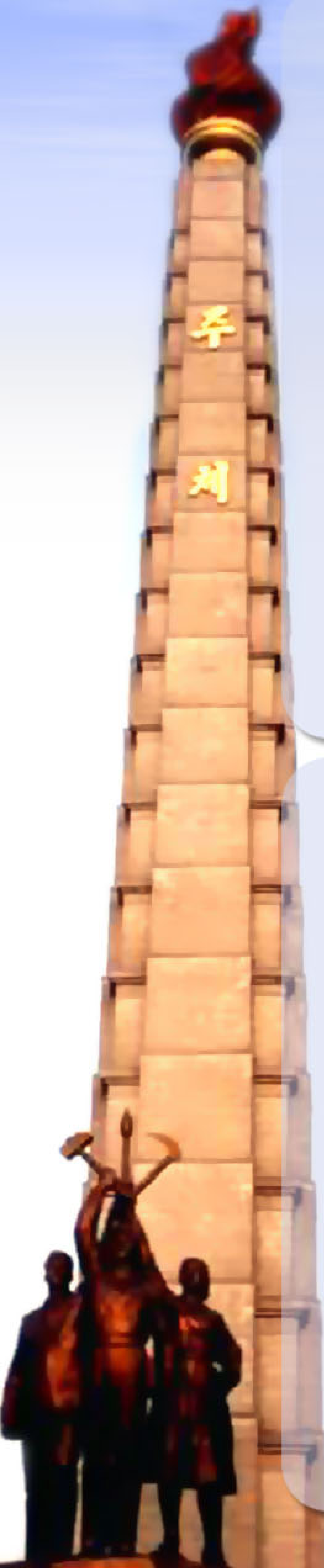
②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혁명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각이한 시대적 조건과 매개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나라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자기나라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들을 옳게 타산하지 못하면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 데서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혁명투쟁에서는 주체적 요인, 정치사상적 요인에 따라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을 때에는 비록 다른 조건은 불리하여도 혁명을 주동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의 노선과 방도를 규정하는 데서는 주체적 요인, 정치사상적 요인을 기본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강화하여 혁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해 나가자면 기성이론에 옳게 대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 가르치신 바와 같이 기성이론의 명제나 공식을 대하는 데서는 그것이 어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또 어떤 전제밑에서 나왔는가를 따져 보고 자체의 구체적 현실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혁명실천에 맞지 않는 이론은 쓸모가 없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데서 출발점은 기성이론의 명제나 공식이 아니라 산 현실입니다. 문제는 기성이론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해당한 역사적 시기의 주객관적 조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고 주객관적 조건에 맞으면 기존 명제나 공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혁명투쟁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원리와 방도를 새롭게 탐구하는 것은 우리시대에 더욱 절실한 의의를 가집니다. 혁명과 건설이 비할 바 없이 심화발전되고 수많은 새로운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시대는 오늘의 현실에 맞는 혁명의 지도이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창조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원리와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천명한 우리 당의 이론활동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나라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며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경험 가운데에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통째로 삼킬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남의 경험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될수록 자체의 경험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남의 것을 무턱대고 본따려 하거나 남의 좋은 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입니다. 문제는 어떤 입장에서 남의 경험에 대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창조성을 잃고 남의 경험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자기실정에 맞지 않는 것까지 통째로 삼키는 교조주의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옳은 노선과 정책을 세울 수 없게 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잘 할 수 없게 합니다.

창조성을 구현하여 모든 것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이야말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3)

로작의 셋째 체계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에서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밝히였다. 문헌의 이 체계에서는 먼저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6페지)**

로작은 먼저 주체사상의 이 원리가 주체사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에 놓여있는 원리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운동의 주체로 되는 근거를 밝혔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 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로작은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반동, 혁명의 대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문헌은 또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한 주객관적조건을 밝혔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특히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9페지)**

주체사상의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힌 원리이다. 로작은 먼저 인류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되는 근거를 밝혔다.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합법칙성을 밝혔다.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로작은 계속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국제적성격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목적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투쟁이라는것을 밝혔다. 로작은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근본요구를 밝혔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자면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 나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계속)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3. 무장에는 무장으로 (3)

유격대 조직에 관한 론의는 근거지에 대한 화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반일유격대가 조직되면 활동기지를 어디에다 두겠는가. 산에 두겠는가. 도시에 두겠는가. 농촌부락에 두겠는가 그리고 조선도 만주도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형편에서 유격전의 기지를 국내에 두겠는가. 만주에 두겠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하였다. 어떤 군대에나 지탱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학생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 무장력이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우는 것만큼 전투가 끝난 다음 안전하게 휴식하면서 대렬도 정비하고 무기와 탄약도 보충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부상자도 치료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유격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끈기있게 해나갈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격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자체의 힘으로 근거지도 꾸려야 하였다,.

우리는 활발한 논의 끝에 군중토대가 좋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괜찮으며 지형이 유리한 간도의 산간지대들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넓은 면적을 가진 만주대륙은 조선보다 적들의 통치밀도가 희박한 것만큼 간도에 먼저 기지를 정하고 때가 오면 국내에도 나가 백두산 대수림지대와 랑림산줄기를 타고 앉자고 하였다.

근거지는 적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며 국내작전을 하는데서나 조국인민들의 지원을 받는데서 다같이 편리한 두만강연안의 산간지대들에 반드시 꾸려야 하였다. 두만강연안에는 물질적 보장조건이 좋고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나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 산간마을들이 적지 않았다.

근거지로 꾸릴 구체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하기 시작하자 리광, 오빈, 김일환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앞을 다투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들의 제의에 따라 어랑촌,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대황구, 녕통라자와 같은 천험의 요새들에 근거지를 꾸리기로 하였다. 그 지역들에는 추수폭동 후 일제의 토벌을 피하여 들어온 혁명군중들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이미 적위대까지 조직되어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을 지키고 있었다.

론의가 심화되고 구체화될수록 근거지를 장기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 즉, 농업생산과 경제운영은 어떻게 하며 무기수리소와 병원은 어떻게 꾸리며 주민행정사업은 누가 맡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이 끝없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문제와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형성할 데 대한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서 반드시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회의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방침으로 정식화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하고도 심원한 창조적 사업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유격전사를 들추어보아도 우리나라 혁명실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기 머리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근거지를 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유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피할길 없는 숙명적인 과제였다. 이 과제해결에서 만일 우리가 정규군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그와의 배합으로 유격전을 벌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모방하였더라면 만회할 수 없는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을 것이다. 어느해인가 라틴아메리카 항쟁운동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유격전쟁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항일전쟁시기의 경험을 몇가지 들려주고 나서 유격전에는 만능의 공식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지혜가 가장 높이 발휘되어야 하는 거창한 창조적 투쟁이다, 우리의 경험이 당신들에게 일정한 도움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화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 것만큼 당신들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쟁방법과 형식을 창조하고 활용해보라. 거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항쟁운동지도자는 내 말을 듣고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자기네 나라에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유격전에 치우쳐왔다. 그래서인지 성과는 적고 손실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정에 맞게 산을 끼고 농촌유격전을 기본으로 항쟁운동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본회의를 끝내고 활동지역들에 돌아가면 곧 유격대조직에 착수하기로 하고 토의를 끝내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과 토벌에 혈육들을 잃고 동지들을 잃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도 갈구하던 우리 군대, 우리 무장력의 탄생을 가까운 래일의 일로 바라보게 된 청년들은 일제히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나쇼날≫노래를 보르며 그 장중하고 우렁찬 선율로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앞에 드리는 선서를 하였다. 명월구 회의에는 동장영을 비롯한 중국공산주의자들도 여러 명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주민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동만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일대에서의 조중인민의 친선과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합작을 처음부터 매우 중시한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들이었다.

동장영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인 조선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 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중국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 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때로부터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인민의 무장투쟁은 대륙을 진감시켰고 위대한 조중친선의 전통은 혈전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31년 겨울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되었던 무장투쟁로선은 이 회의를 통하여 심화발전되었다. 카륜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최고단계인 무장투쟁에로 이행시키려는 조선민족의 의지가 확인되었다면 명월구에서는 그 의지가 거듭 확인되고 ≪무장에는 무장에로, 반혁명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라는 구호밑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바로 이회의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었다.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 밑에서 동장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대련감옥에 갇혀있는 김리갑과 방직공장에 적을 두고 공청사업을 하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전경숙에 대한 이야기를 동장영한테서 들은 것이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동장영은 주민구성 뿐 아니라 동만당조직들의 당원구성을 분석해보아도 그 대다수가 조선동지들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그들을 대표하여 자기 사업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사람들입니다. 조선족 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리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변한 주위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믿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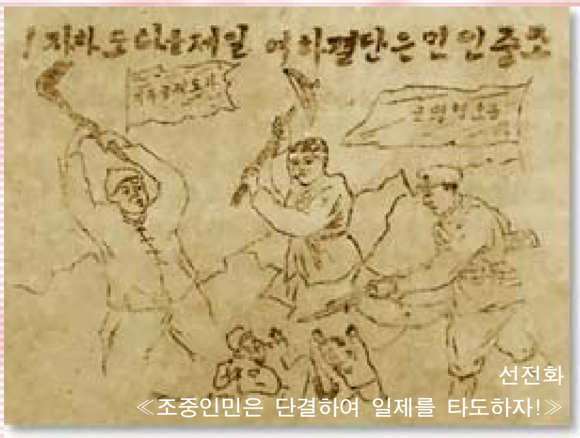
나는 그의 당부를 뜨겁게 받아들이었다.

≪두 민족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인민들 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굳게 손을 틀어잡았다. 그후 나와 동장영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 주은래총리는 내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연회연설이나 회담들에서 1930년대초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조중친선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친선의 뿌리깊은 전통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조중친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명월구의 회의장을 생각했고 우리와 함께 포연탄우속을 헤쳐온 위증민, 동장영, 진한장, 왕덕태, 장울화, 양정우, 주보증, 호진민을 비롯한 중국의 친근한 공산주의자들을 목메이게 기억하군 하였다. 친선의 정도 인간감정인것만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맺어져야 공고한 것으로 되며 또 그렇게 맺어진 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

(끝)



선전화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일제를 타도하자!≫

일화

한번에 네가지, 다섯가지 일을 동시에

김정일장군님은 한번에 한가지 일이 아니라 네가지, 다섯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남다른 복합적인 일처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일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시는 것이 없고 완벽성을 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 한 일꾼이 장군님으로부터 받은 과제수행정형을 보고하려고 그분의 집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그분께서는 문건을 보시며 활달한 필체로 가필하고 계셨습니다. 집무실 한구석에 놓인 녹음기에서는 어느 예술단에서 형상한 새 노래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전화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녹음기소리를 낮추고 수화기를 드신 그분께서는 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요해하시고 해당한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바쁜 모습을 본 일꾼을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분께 부담 끼칠까봐 잠시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전번에 준 과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일을 다 보신 다음에 들어와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그분께서는 일없으니 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은 가지고간 문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든 그는 저도 모르게 말을 중둥무이해버렸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이 심중한 문제이기에 혹시나 그분께서 스쳐 지나지 않으실까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어찌나 문서보시는데 집념해계시는지 자기의 보고를 듣지 못하시는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왜 그만두는가고, 계속하라고, 다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보고를 계속하자 그분께서는 여전히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긍도 하시고 어떤 것은 되묻기도 하시며 그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돌고 있던 음악작품 녹음테프가 다 풀리자 녹음기를 끄신 그분께서는 해당 단위에 전화를 걸어 가요에 대한 우단점을 말씀하시고나서 옆에 쌓인 새로운 문건을 들어 펼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히 시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분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일꾼을 그처럼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날 일은 그날로 처리해야지 자신께서 이렇게 문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수령님께 부담을 드리게 되고 정시로 달리던 혁명의 기관차가 잠시 멎을 수 있다고, 물론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많은 일을 처리해야겠기에 피로를 참아가며 문건도 보고 녹음도 들으며 녹화물도 본다고, 이렇게 일을 해야 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은 시간을 주름잡으며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나가시는 그분의 비상한 사업능력과 정력에 탄복을 금치 못해하면서 늘 보아야 장군님께서 글을 굉장히 빨리 보시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호기심으로부터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외람되는 물음이였지만 장군님께서는 웃음지으시며 제기된 문건을 다 보는 방법은 빨리 보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글을 볼 때도 최대의 정열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장군님께서는 초인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한시간은 60분, 3천6백초로서 누구에게나 시간의 길이는 같지만 장군님께서는 남들과 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4-~5배의 일을 하시니 그것이야말로 전설로나 알던 축시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시

목 란 꽃

남*산 문턱에도 하얗습니다
내장산 기슭에도 눈부십니다
전주의 태양회 회원인 우리
목란꽃 정성껏 피웠습니다

백설처럼 깨끗한 하얀 꽃송이
꽃은 너무 크고 눈부십니다
백의동포 한몸 다해 사랑해 주시는
주석님 고결한 성정입니다

꽃잎 속에 빨간 꽃술 붉게 안은 듯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그 밤 비껴옵니다
통일 위해 흔연히 심장 불태우신
열렬하신 한평생을 못 잊습니다

주석님 본 이 전주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만꽃 피고 피어도
환하신 태양의 영상 향기 속에 모시는
목란꽃은 주석님 꽃입니다
주석님 꽃이기에 영생합니다

온 겨레를 품어주시는
통일의 태양 **김정일**영수님
다도해에 모시는 날 꽃잔치 차릴
아- 목란꽃은 통일조국 국화입니다

흠모

회고록 160여개 나라에서 애독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이 기간 회고록은 세계적판도에 널리 보급되였다.

회고록 제1부 - 항일혁명편 1, 2권이 발표되여 6개월 남짓한 기간에만 하여도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15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회고록의 구성체계와 장, 절들의 전문과 상세한 내용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인디아, 캄보쟈, 벌가리아, 뽈스까, 에티오피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름 있는 출판기관들과 단체들에서는 회고록을 출판하였다.

회고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개의 어종으로 번역출판되였는데 그것은 수십만부에 달한다.

중국과 로씨야에서는 회고록의 항일혁명편 1권부터 8권까지 9만 1, 200여부 발행하였다.

네팔에서는 1권부터 7권까지 발행한데 이어 8권에 대한 출판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는 회고록 1, 2, 3권을 백봉문고로 발행하였으며 그 전문을 잡지 ≪주체사상연구≫에 련재하여 세계 130여개 나라에 배포하였다.

회고록은 오늘 여러 나라의 책방과 도서관들, 사회단체들을 통해 널리 퍼져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회고록은 세상에 나온 후 세계5대륙의 160여개 나라에 급속히 보급되였다.

몽골, 민주꽁고, 뽀르뚜갈, 뻬루를 비롯한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회고록에 대한 연구토론회, 감상발표회, 강연회, 독보회 등이 해마다 진행되였으며 파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련합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네팔에서는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문답식학습경연이 조직되였으며 말리에서는 4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회고록 독서월간으로 설정하였다.

부르끼나파쏘 대통령, 뽀르뚜갈 전 대통령, 적도기네전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정계인사들이 또한 회고록을 애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일

그날의 기개 되살려 반미투쟁에 나서자

1948년에 있은 4.3제주도 민중항쟁은 한반도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50여년전 거센 반미투쟁으로 침략자 미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 준 4.3민중항쟁을 유진명씨 모시고 돌이켜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올해 4월 3일은 거세찬 반미투쟁으로 침략자 미제에게 치명타를 안겼던 제주도항쟁이 있은 때로부터 5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먼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유진명 :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54년전인 1948년 4월 3일에 지펴올렸던 제주도 민중들의 의로운 반미항쟁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어요.

당시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한국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영원히 타고 앉기 위해서 각계 민중의 애국적 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저들의 충견인 이승만을 **** 매국적 5.10단선조작책동에 광분했어요.

사회자 :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열책동은 우리 민중의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야기시켰고 마침내는 4.3제주도민중항쟁의 거센 불길로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그렇죠. 미제와 이승만역도의 책동에 분격한 제주도의 노동자, 농어민 등 각계층 민중들은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연봉에서 타오른 횃불과 총성을 신호로 일제히 반미구국투쟁에 나섰어요. 인민자위대를 선두로 한 항쟁자들은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결사반대한다!≫, ≪미제의 주구를 타도하라!≫, ≪유엔한국위원단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과감한 투쟁을 벌였죠. 그리고 도처에서 집회를 열고 각종 파쇼악법들의 폐기를 선언했고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적 단체들을 복구정비했던 겁니다.

사회자 : 제주도민들의 이같은 과감한 대중적 진출에 당황한 미제침략자들과 이승만역도는 어떻게하나 항쟁자들의 투쟁을 말살하고 단독선거를 실현해보려고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까지 설치해놓고 봉기진압에 광분하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미제와 그 주구들은 수많은 미군병력과 1500여명의 무장경찰 그리고 3000명이 넘는 국방경비대와 수천명의 무장테러단, 심지어 함선과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제주도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을 자행했어요.

그러나 원수들의 그 어떤 야수적 폭압만행도 제주도민들의 반미애국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는 없었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투쟁은 더욱 고조됐고 애국적 군인들까지 항쟁의 대오에 합세해서 봉기는 20여만의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으로 확산, 고조되어 갔습니다. 제주도항쟁자들의 희생적인 과감한 항거에 의해서 제주도에서의 5.10단선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어요.

사회자 : 참으로 제주도항쟁자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민중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한 영웅적인 장거라 하겠는데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4.3제주도민중항쟁의 경험과 교훈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 아닙니까.

유진명 : 그렇죠. 제주도민중들이 벌인 의로운 반미항쟁은 광범위한 민중이 투쟁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로 굳게 결집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었고 원수들이 제아무리 갖은 발악을 다해도 조성된 정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옳게 결합해서 보다 대중적인 투쟁으로 벌여나갈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원수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실증해 주었어요.

사회자 : 의로운 4.3제주도 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날의 항쟁자들이 피나게 절규한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미제의 경제침탈책동으로 이 땅의 경제는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 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헤아릴 수 없어요. 특히 미제는 6.15공동선언으로 모처럼 이 땅에 마련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핵전쟁의 위험을 조성해 우리 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죠.

사회자 : 현실은 미제를 이 땅에 그대로 놔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우리 민중 모두가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설 걸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명 : 옳은 말씀입니다. 각계의 애국민중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결사적인 투쟁으로 망국적 5.10단선을 저지파탄시켰던 제주도민중들의 그 기개를 되살려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하겠죠. 당면하게는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거예요.

사회자 : 그렇게 해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이 땅위에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노동대중은 그날의 투쟁기개를 되살려 반미반전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할 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일~2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2일

태양절을 민족의 축일로 기념하기 위한 모임 진행
≪태양회≫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양회≫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민족의 축일로 기념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내 모처에서 가진 회합에서는 회장 이명수씨가 4월 15일은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가로 이름난 위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14살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생애 마지막시기까지 한평생을 오직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위인은 없었다. 진정 **김일성**주석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이씨는 계속해서 ≪태양을 따르는 위성들이 변함없이 자기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주석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에 기념강연회를 비롯해서 주체사상토론회,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발표회,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노래보급, 사진전개최, 6.25전쟁시기 주석님께서 다녀가신 수안보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인상저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총궐기집회
교육학생연대

교육학생연대는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등록금인상저지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집회를 가지고 정부는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 3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학생연대는 등록금인상문제나 교육과정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조정문제가 학생이나 교육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과 교육시장화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등록금인상저지, 국민총생산대비 교육재정6%확보, 국립대의 민영화정책과 전문대차별화정책반대, 학문간 통폐합정책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27개 중대 2700여명의 경찰병력을 주변에 배치하고 탄압에 광분했습니다.

한편 연세대 총학생회 등 이 학교 학생 3000여명도 이날 오후 교내 민주광장에서 고 노수석열사 6주기 추모식을 가진뒤 교육재정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의 한반도 핵전쟁위기 책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부시행정부가 이북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구실을 붙여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계속하려고 책동하고 있어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스≫통신이 전한데 따르면 부시행정부는 이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북경수로 건설지연과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도 해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스≫통신은 부시행정부가 이북이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고증을 철회한 것은 합의문파기의 첫번째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3월초 자체 입수한 미국방부의 극비보고서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북 등 7개나라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온갖 구실을 붙여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문을 깨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대의 한 회원은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씌우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북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떠들며 북침전쟁도발을 꾀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북이 제네바합의문을 위반했다는 구실을 붙여 합의문을 파기하고 북미간대립을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핵전쟁도발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북미기본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이다. 클린턴 행정부때 좋게 발전하던 북미간관계가 역전되어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호전광부시가 집권하자마자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을 펴면서 북미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반미적인 나라들을 굴복시켜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는 것이 부시의 공상이다. 부시를 그냥두면 우리 민족과 인류가 핵참화를 면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부시의 무분별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 싸워야 한다.≫

미국전투기, 누구에게 필요한가

지금 이 땅의 사회각계에서는 악의 제국 미국의 북침무력증강책동에 적극 가담하는 호전광들의 작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20일 국방부청사 앞에서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의 주최로 미국제전투기도입반대를 위한 제2차 집중투쟁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선포식에서는 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도입시도를 폭로한 대령을 체포구속한 것은 F-15기를 기어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까밝히면서 미국무기도입을 결사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기만우롱하고 있는 당국을 준열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동족끼리의 전쟁을 위해 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을 우리 민중은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중투쟁의 수위를 더욱 고조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의롭고 정당하다.

미국전투기도입으로 말하면 그것은 동족을 살육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호전광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대며 서울을 행각하여 북침전쟁열을 고취한데 이어 북을 ≪핵타격대상≫으로 삼고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벌여놓았다.

그런데 민족공멸을 겨냥한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호전광들은 원래 계획보다 15만명이나 더 많은 65만여명의 병력과 수많은 장비들을 동원시켰다. 호전광들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대범죄행위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호전광들이 미국의 무기강매요구에 아부굴종하여 동족살육을 위한 더많은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이다.

친미호전광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우리 민중과 민족위에 있는 존재로 되고 있다. 그들은 민중과 민족은 어떻게 되든 미국에만 잘 보여 저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반민중적, 반민족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기에 친미사대매국노들은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40억달러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미국에 섬겨바치려하고 있다.

우리 민중은 반세기이상이나 침략자, 약탈자 미국을 살찌우는데 골육을 도륙당해오고 있다.

이번 미국무기강매만 보아도 그것은 우리 민족을 죽이고 미군수업체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러니 미국전투기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우리 민중에게는 미국비행기가 필요치 않다.

오늘 우리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공조이며 민족대단결이다. 친미호전광들의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미국전투기도입책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민의에 역행하는 자들에게 안겨질 것이란 파멸뿐이다.

친미호전광들은 우리 민중의 의지를 직시하고 이 땅에 살인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온 겨레와 전세계 앞에 약속한 6.15공동선언이행에 나서야 한다.

각계층 민중은 당연하고 의로운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집중투쟁에 적극 동참해 나서야 한다.

전국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민중과 민족을 죽이려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을 타도매장하며 악의 총본산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논평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의정부 미군기지 신설에 반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에 미군기지 30만평 신설이 확정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소음공해 등 미군기지피해가 가장 심한 의정부시에 오히려 미군기지가 늘어나는데 경악한다며 시민주권을 박탈한 이번 협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각계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지극히 의로운 투쟁의 분출입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에 미군기지 30만평 신설이 확정된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하라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기지에서 마구 내보내는 폐수와 각종 공해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과 미국은 미군기지를 철폐할 대신 오히려 새로 신설하려고 책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군사장비세척액, 지하저장고에서의 가스누출, 미군들의 생활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히 오염되고 있으며 농토도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건강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동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해 *** ** 청력 등에서 모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미군기지들 때문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소음때문에 또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소음기준치를 훨씬 넘는 미공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청력장애와 두통은 물론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직승기부대가 있는 의정부, 춘천지역에서는 직승기의 소음으로 난청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군기지 주변 주택들에서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삼복중에도 문을 닫고 청소해야 하고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와 미군부대의 훈련이 겹칠 때면 행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미군기지야말로 우리 민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소굴입니다. 미군기지때문에 우리 민중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군당국과 미국은 미군기지를 모두 철수할 대신 도처에 새로 신설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의정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미군기지 신설에 강하게 반발해 나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은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부딪히기 전에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하고 의정부시에 미군기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이 땅에서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그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철폐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단합의 대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립된 개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결된 민중의 힘은 무한대한 능력과 활력을 가질 수 있죠. 이건 오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검증된 불변의 진리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민족의 생명선인 자주성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의 대단합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하셔서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혹한 시기였던 1993년 4월 조국통일의 강령적 기치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단합의 대헌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고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해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로, 조국통일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려는 건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번에 미국은 얼토당토않게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고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국통일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은 엄중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엄혹한 사태하에서 우리 민족이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서로 반목질시하며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 민족전체가 그 희생물이 되리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 하겠죠.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통일해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주체의식을 갖고 굳게 단결해 투쟁하는데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과 오늘의 복잡한 현실이 보여주듯이 그 어떤 외세도 민족의 운명개척을 대신해줄 수 없고 그건 오직 그 주인인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의 온 겨레가 단결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뜻이 잘 세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10대강령의 모든 내용들에는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그건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민족단합과 애국애족의 위대한 이치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라는 걸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여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방도는 현존하는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또한 10대강령에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자주정신이 투철한 민족입니다.

7천만 겨레가 민족의 번영과 긍지를 간직하고 개인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애와 자주정신에 기초한다면 얼마든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을 초월해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계급계층도 민족의 한 부분인만큼 민족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죠. 만일 우리 민족이 서로의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언제가도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원칙에 설 때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동족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는 문제, 남침과 북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현시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현시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민족주체의 힘으로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융성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힌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민족단합의 위대한 기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어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 분열을 추구하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에게 있어서는 준엄한 철추로 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민족대단결강령, 조국통일의 위대한 기치이죠.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온 민족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해서 뜻과 힘과 지혜를 합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이 땅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참가해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부주제부각상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편≫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2일

황해남도 10만여정보 토지정리공사 완공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진행되여 온 황해남도 10만여정보의 토지정리가 완공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앞두고 이 공사는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였다. 황해남도는 조선 서해안지대의 이름 난 쌀생산지이다.

이 공사로 도의 모든 포전들이 800~1,500평씩의 기계화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다. 그리하여 73만 8,000여개의 논배미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으며 근 5만키로메터의 논두렁이 3분의 1로, 1만여키로메터의 수로가 1,000여키로메터로 줄어 들었다.

또한 많은 밭이 논으로 되였으며 논두렁과 물웅뎅이, 공지들이 정리되여 근 2,000정보의 새땅이 생겨 났다.

태양절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웨리예, 벌가리아, 기네, 싱가포르, 적도기네에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영화상영 주간 및 월간 개막식, 사진전시회 개막식, 강연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사진전시회 개막식에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였다고 말하였다.

기네국방성 군의국장은 ≪조선의 행운≫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함으로써 조선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말하였다.

국방력강화는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근본담보

≪로동신문≫ 2일부는 자위적국방력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강권과 전횡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제국주의자들이 주권국가들에 대해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는것은 그 나라들의 군사력이 약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대가 강하고 나라의 군사적진지가 튼튼하면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배심이 든든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것이다. 반대로 군사력이 약하면 무엇을 하나 해도 먼저 주위환경을 살피게 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자연히 신경을 쓰게 된다. 이렇게 하는것은 사실 자주적인 정치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예속된 정치, 굴욕적인 행동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호전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광을 해도 조금도 겁나하지 않으며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제가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들것이며 그들이 대포를 내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를 내들것이다.

조선인민과 군대가 지니고 있는 배심은 가장 혁명적이고 철저한 반제계급의식에 뿌리를 둔것인 동시에 강위력한 군사적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서 나오는 자신심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져 나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

≪로동신문≫ 2일부는 미국의 부당하고 호전적인 태도로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져 나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자신이 져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조미관계를 오늘과 같은 극단한 상황에로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미관계개선의 기초로 되고 있는 조미기본합의문의 사항들을 뒤집어 엎고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제입으로 약속한 경수로제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경수로건설은 기초단계를 벗어 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기한내에 경수로를 우리에게 제공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은 1993년도 6월에 발표된 조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원칙들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한번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미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성실히 리행하여 왔다.

우리가 자기의 계획대로 평화적인 핵에네르기개발을 추진시켜 왔다면 이미 우리의 어려운 전력사정은 타개되였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kw의 전력이 귀중한 상황속에서도 미국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보건대 미국은 생억지를 부리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이 리행되지 않고 조미관계가 최대로 악화되고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타산하고 있는것 같다.

론평은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할 의사와 우리에 대한 호전적인 강경압살태도를 바꿀 용의가 없다면 우리도 제 갈길을 갈것이라고하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에 기대하는것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군수독점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

≪로동신문≫ 1일부는 부쉬행정부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대군수독점체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며칠전에 미국방성이 미싸일요격시험에서 ≪성공≫하였다고 떠들어 댄것은 ≪이지스≫반항공체계를 남조선에 팔아 미국의 대군수독점체들의 주머니를 불리워 주자는데 있다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모든 대내외정책이 대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해 작성, 집행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사실상 대군수독점체들의 손바닥우에서 놀아 나는 정치인형에 불과하다. 군수독점체들의 눈에 들면 정치의 주역처럼 놀아 댈수 있지만 그들의 눈밖에만 나면 자연히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 나게 되여 있는것이 미국집권자들의 운명이다. 현 미행정부와 군수독점체들은 서로의 리익을 위해서 그 어떤 짓도 가리지 않는다. 미국집권층은 다른 나라들에 ≪불량배국가≫, ≪테로지원국≫, ≪악의 축≫이라는 루명도 서슴없이 씌우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지역위기사태를 조성하고 국제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미싸일위협≫설을 지금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을 반북대결에로 부추겨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이지스≫반항공체계와 같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 팔아 먹는것을 정당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이 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팔아 먹는것은 자기의 리익을 위해 조선반도를 전쟁의 재난속에 밀어 넣는것도 서슴지 않는 범죄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론평은 우리가 배를 곯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자위적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을 규탄

≪로동신문≫ 2일부는 남조선의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은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 위한 극히 도발적이고 음모적인 반공화국전쟁선언이며 조국통일을 가로 막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반민족적분렬대결선언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우리의 체제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수립된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체제이며 온 세상사람들이 공감하고 부러워 하는 가장 인민적인 체제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한나라당≫의 ≪분리원칙≫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며 ≪북침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허황한 개꿈이다.

리회창패거리들이 들고 나온 ≪상호주의≫는 군부독재시기의 북남대결론의 변종이며 ≪투명성≫이라는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 체제를 허물고 ≪북침통일≫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속심의 발로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미제의 졸개정당, 침략의 하수인, 민족안에 더이상 그냥 둘수 없는 반역무리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론평은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로선≫은 오직 미국의 개가 되여 반민족, 반통일, 반공화국대결행위에 발 벗고 나서서 ≪북침통일≫만을 꿈꾸는 반역의 무리 리회창패당을 한시바삐 매장해 버려야 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해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의 ≪한나라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달아 오른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3월 31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나라당≫이 이번에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차단하며 민족적불화와 대결로 일관된 극악한 분렬선언, 전쟁선언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변인은 남조선의 천도교인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앞에 지은 죄악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리회창역도와 그 패거리들을 완전히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2)

로동신문 론설 – 주체91, 4월 1일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있다

선군정치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정세의 변동에 따라 전술은 달라 질수 있어도 총대로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혁명의 원리는 절대불변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가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선군사상이 세계가 공인하는 사조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사상과 리념을 달리하는 수많은 국가지도자들과 저명한 정계인사들이 선군정치에 공감하고 있으며 선군의 길로 나가는 우리 혁명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선군사상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는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 잡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해 주고 있다. 지어 적들까지도 우리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위력앞에서 공포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같이 세상에 나온지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기간에 세계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리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린 례는 일찌기 없었다.

바다로 도도히 굽이쳐 가는 대하의 흐름을 멈춰 세울수 없듯이 선군정치의 견인력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반제투쟁이 격렬해 질수록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것이 우리의 선군정치이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더욱 굳세여 지는것이 선군을 따르려는 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이다. 인류의 미래는 선군에 있다.

오늘의 장엄한 현실에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의 길을 억세게 걸어 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신념으로 새기게 된다. 선군은 곧 사생결단이며 결사의 의지가 맥박치는 곳에 사회주의승리의 기치가 휘날리게 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의지로 선군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로선을 우리 시대의 영원한 지도적혁명로선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혁명위업의 불패성은 지도로선의 위대성에 있다. 선군로선은 장구한 반제투쟁사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이 집대성된 혁명로선이며 우리 시대의 전도와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있는 과학적인 로선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세워 나가고 계신다. 당건설과 정권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기준으로 되는것도 선군로선이고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활동방식, 사업기풍에 관통되여야 할 시대정신도 선군사상이다. 선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이며 모든 체계와 내용에 하나로 관통되여 있는 철칙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면 선군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적지도로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선군로선의 력사적 지위가 있고 거대한 변혁적의의가 있다.

오늘날의 참된 혁명가는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이다. 선군의 길만이 살 길이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 죽으나사나 선군로선을 관철해 나가려는 강의한 의지, 이것이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이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전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가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투철한 반제계급투쟁관점을 가지고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우리 시대에 벌어 지는 모든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일관되여 있다. 혁명하는 인민에게서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계급적근본을 잊고 반제투쟁을 외면하며 거기에서 물러 서는것은 절대금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인민들이 계급적각성을 늦추고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질수 있겠는가.확고한 계급투쟁관점을 가져야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와도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될수 있고 사회주의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 나갈수 있다.

반제계급투쟁에서는 원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피를 물고 달려 드는 제국주의원쑤에게는 자비가 있을수 없고 관용이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장에 나선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는 원쑤들에게서 기어이 피값을 받아 내겠다는 복수심이 용암처럼 불 타야 하며 우리의 총창은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서리발치는 총창으로 되여야 한다.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칼을 들고 달려 든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인 계급적증오심을 총 폭발시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죽음만을 안길것이다.

제국주의원쑤들은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있다. 수령옹위는 최고의 계급투쟁이다. 제국주의와 추호의 타협도 모르고 견결히 싸우는 혁명가의 의지와 결심은 수령결사옹위에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옹위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워 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절해고도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르고 단두대우에서도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과감히 싸우는 견결한 수령결사옹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간직하고 반제투쟁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다. 결사의 각오는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는 신념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 필승의 신념,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락관을 가지고 가장 간악한 일제와 미제를 쳐부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도 영웅적으로 돌파하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위대한 사상이 있으며 불패의 군대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만 있으면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우리의 반제투쟁사가 보여 주는 진리이다.

지금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에 대하여 갖은 비난과 헐담을 늘어 놓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민에게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 줄뿐이다. 적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것은 반제투쟁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다는것이다. 반제투쟁에 나선 혁명가는 적들이 추어 주는 달콤한 말에서 무서운 독소를 볼줄 알고 적들이 비방하고 중상할수록 필승의 신념을 가다듬을줄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궤변을 늘어 놓든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은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힘의 대결이다. 강력한 군사력도 나라의 전반적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지금 약육강식의 침략교리가 골수에 밴 제국주의자들은 약자들이라면 서슴없이 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력이 약하면 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설수 없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요구를 감수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의 노예로 굴러 떨어 지는 길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저락시키고 예속을 가져 오는 근본요인은 국력의 쇠퇴에 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다지는 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이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제국주의와 끝까지 견결하게 싸워 나가기 위한 국력을 완성해 나가는 보람찬 위업이다. 강성대국이자 곧 반제투쟁의 강력한 보루이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면 사상에서나 군사에서나 경제에서나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타승할수 있고 민족의 존엄을 후손만대에 높이 떨쳐 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강성대국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운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불 타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 세기 혁명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원쑤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에 견인불발의 의지로 맞서 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훌륭한 전통이다.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다. 지금 인민군대는 불 타는 강을 건느던 1950년대의 그 정신, 대담한 공격전을 벌린 ≪고난의 행군≫시기의 그 기백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처럼 원쑤의 가슴팍에 총창을 박는 멸적의 기세로 오늘의 총 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 나갈 때 견결한 반제계급투쟁정신과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김일성**민족의 혁명적기개가 높이 떨쳐 지게 될것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21세기 치렬한 대결전에서 적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와 패배뿐이며 우리가 얻을것은 번영하는 강성대국이고 조국통일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길은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지켜 주고 꽃 피워 주는 성스러운 길이다. 선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끄떡 없고 우리의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영도력을 지니신 영도의 거장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2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2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는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사상이론의 영재로서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실 뿐아니라 비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영도의 거장이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영도력을 지니신 영도의 거장이시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의 영도는 역사발전과 혁명 승리의 근본요인입니다. 혁명의 영도자가 인민대중에 대한 영도를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훌륭하게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지닌 영도력에 달려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와 거창한 혁명, 필승불패의 인민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러한 역사와 혁명을 창조하고 그러한 인민을 키워낸 수령의 영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비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시켜오신 영도의 거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영도력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 출중한 조직력과 동원력, 무비의 담력과 영활무쌍할 지략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영도자이시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선견지명이라고 할때 그것은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하며 그에 맞는 과학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능력과 자질입니다. 혁명의 영도자는 선견지명을 지녀야 앞날을 과학적으로 예상하고 올바른 노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있을 수 있는 난관과 시련에 예견성있게 대처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그 어떤 시행착오나 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은 혁명의 영도자가 지녀야 할 필수불가결의 기질의 하나로 보았으며 정치가의 명성은 그가 지닌 선견지명에 의해서 평가되여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선견지명은 인간의 사유와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선견지명이며 천리혜안의 예지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명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얼마나 먼 장래까지 정확히 예견했는가를 뚜렷이 확증해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유명한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공산주의를 실현할때까지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전략노선으로 내세우시고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유명한 명제가 있었기에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물질경제적 요인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회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줴 버렸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승리적 전진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선견지명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적인 선견지명이며 당면한 혁명과업과 가까운 앞날의 일만이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 예견하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원숙한 조직동원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혁명의 영도자의 조직동원력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승리의 근본담보입니다. 혁명의 영도자가 원숙한 조직동원력을 지녀야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대중에 대한 조직동원력에 있어서도 출중한 영도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조직동원력은 인민대중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천만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융합시켜 무비의 힘을 지닌 혁명의 주체로 만들고 천만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창조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 무한대의 힘을 가진 조직동원력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조직동원력은 우선 천만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워 그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시키신 뛰어난 조직동원력입니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굳게 결속되어야 무비의 힘을 체현할 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하는 일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일 뿐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의 역사가 백수십년을 헤아리고 있지만 그 어느때 어느 나라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해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우는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발전의 특성으로 해서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업이 다른 나라에 비할바 없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광복 후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열로 해서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와 주민구성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급과 계층에는 노동계급과 농민, 지식인만이 아니라 소자산계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들도 있었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파벌이 또한 우심했습니다. 특히 1920년대 우리 나라의 초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은 자파세력 확장을 위한 여러 갈래의 파벌싸움으로 사분오열되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 시기는 물론 광복 후 새 조국건설 시기에도 우리 혁명대오의 조직적 결속을 실현하는데서 큰 장애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우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는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통일단결된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조직동원력은 또한, 천만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창조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 무한대의 힘을 가진 조직동원력입니다. 인민대중이 역사를 전진시키고 혁명을 담당수행하는 기본동력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역사와 혁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영도자의 영도를 받을때에만 높이 발휘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게 될 때에만 그들은 사회발전과 혁명운동의 기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확한 투쟁구호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 인민대중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시고 우리식의 독특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시여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조직동원력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을 굳게 묶어세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하는 기적과 위훈의 역사가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숙한 조직동원력을 지니고 계실 뿐아니라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상한 혁명전 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여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켜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생애의 전기간 연이어 새로운 과업을 내세우고 줄기차게 밀고 나가시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으로 이끄셨을 뿐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시여 최단 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비상한 전개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언제나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시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풀어 나가심으로써 연관된 모든 고리들에서 다같이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출중한 혁명적 전개력의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영활한 지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영활한 지략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인민의 이익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한 최대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되여 있는 담력과 지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지략은 그 어떤 뇌성벽력에서 드놀지 않는 무비의 담력이며 언제나 주동을 틀어쥐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승리만을 안아오신 영활무쌍한 지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의 철의 의지를 말해주는 한가지 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적들이 전 전선에 걸쳐 이미 1내지 2킬로미터나 침공해 들어온 그 시각에 내각 비상회의가 소집되였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은 고도로 긴장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느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회의장에 나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보았소≫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순간 회의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은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크나큰 담력과 혁명적 기상앞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 전쟁은 벌써 이긴 전쟁이라는 철의 신념이 그들 모두에 가슴에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인류전쟁사에는 강적과 맞닥들었을때 싸워도 보지 않고 주저하며 동요하거나 항복하는 경우가 드문하였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군함 몇 척을 끌고와 위협공갈하자 싸워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항복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지어 자기 영토의 일부까지 떼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적들을 발 아래로 굽어보시고 무비의 담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과 압살책동에 단호히 맞받아 나가셨습니다. 실로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혁명적 공세와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는 그이께서 지니신 백전백승의 탁월한 영도력에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덕의 최고 화신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임동원특사파견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파탄의 위기를 돌파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연대, 임동원 특보 특사 파견과 관련해 논평 발표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한 특사파견≫에 대한 우리 정부측 발표와 동시에 북측도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임동원 대통령 외교통일안보특보의 평양 방문을 발표하였다.

통일연대는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평양방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되는 방문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김대중 대통령이 재삼 재사 밝힌바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계기로 되는 방문≫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순응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란 외세의 일방적 요구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로 휩쓸려들어가지 않을 때 보장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가 더 이상 외세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지 않고 민족의 공조와 단합을 확고히 실현하는 길뿐이다. 임동원특사는 이러한 명백한 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것인가를 중심으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내정간섭, 전쟁책동과 한반도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연대는 이번 방문이 개별 사안에 대한 합의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시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임동원특사는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의 6.15남북공동선언파탄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회담으로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통일세력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그 순간부터, 남북공동선언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의 나발수가 되어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들고나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미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며, 대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대권을 구걸하는 수치스런 모습까지 보였준 바 있다.

이번 임동원 특보의 평양방문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부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의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이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국민요구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우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3.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또 그것은 민족의 공조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기시 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안에서 조차 논의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이 범국민적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미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적대정책을 등에 엎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한나라당과 수구반통일세력의 주장은 국민들 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6.15남북공동선은 외세등의 갖은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7천만 민족의 이정표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그 어떤 난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없이 민족자주의 길, 민족대단결의 길을 가고야 말 것이다.

임동원 특보는 그간 김대중 정부의 모든 동요와 흔들림을 청산하고, 민족의 운명을 걸머 쥔 특사답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자세로 일관할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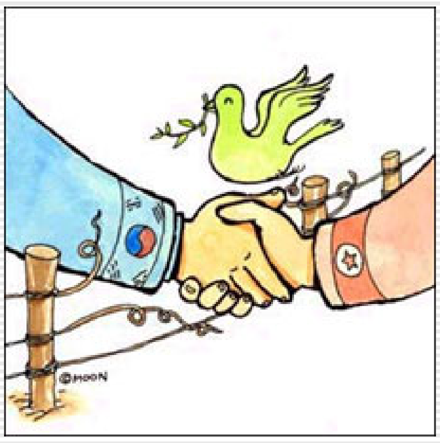
방북을 위해 출발하는 임동원특사

임동원특사 파견에 대하여

3.25 임동원 특사가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하게 된 배경은 첫째.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대북 공세를 강화했지만 후속 수단이 여의치 않았던 미국의 딜레마 둘째. 2.19~21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이북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외교적 후퇴를 얻어낸 점 셋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북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동원 특사 파견과 맞물려 몇가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3.13에 이어 3.20 미국에서 박길연 대사와 잭 프리쳐드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간의 회담이 진행된 점, 둘째는 3.22 행불자 문제와 관련해 조선적십자사 대변인이 일본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을 들 수 있겠다.



3월 하순으로 접어 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차적인 공격대상은 이라크이다. 이북에 대한 공세는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마땅한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남측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언술적인 수준에서나마 완화한 성과위에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예상되는 북미간 대격돌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미국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3월 하순에 나타나고 있는 해빙 무드는 향후 전개될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첨예한 격돌을 예비하고 있는 일시적인 완충 시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완충 시기의 우리의 과제는 다음의 두가지가 아닐까 한다.

하나는 남북 당국자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간의 현안에 더해 이북의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 할 것이다. 반면 이북은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간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정치 협상을 중심 화두로 할 것이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과 이산가족, 경의선 연결 등의 비정치적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으려는 남측의 입장과 1차 최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이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정치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북의 구상이 충돌할 것이다. 관건은 남북 당국자회담이 미국의 통제 범위를 뛰어 넘는 민족대단결의 대로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적당한 실랑이를 거쳐 본격적인 북미 대결로 전선을 이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는 전민족적인 대단결 운동의 발전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민간급 차원의 대단결 운동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고 민간급 차원의 확장된 운동 역량은 역으로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추동시키는 반대 효과가 있다. 아리랑 축제를 시작으로 6.15 2주년, 8.15 광복절까지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확대하여 민족주체역량을 공고히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측 정부를 6.15 정신의 근본 요구에 맞게 ≪민족 공조≫의 입장으로 견인하며 다가올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의 강력한 대치선을 형성해야 한다.

금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절호의 기회이자 중요한 승부처이다.

민경우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통일연대 홈페이지 2002/04/02

임동원 특사 방북 출발인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합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튀기 위해 평양에 갑니다.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이북 최고 당국자의 견해를 듣고 오겠습니다.

남과 북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화해협력의 틀을 확고히 다지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측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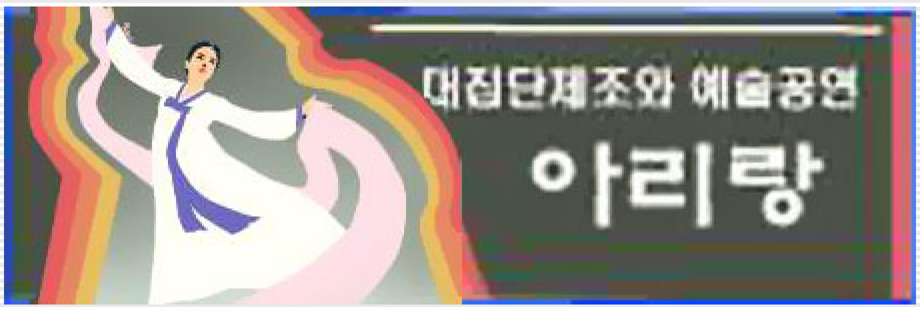
이 일들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특사 방북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세와 아리랑 축전의 의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점차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1년 등장한 미국 부시행정부는 과거 북미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를 무로 돌리고 강도 높은 적대정책을 관철하는 것을 대북 정책의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그 총구를 ≪악의 축≫으로 돌리고 아시아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 이란, 이라크, 중국 등 7개국에 대한 선재 핵공격을 고려하는 한편, 소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핵무기 감축안에 대해서도 감축대신에 ≪보관≫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지하시설이 많은 북측 지형에 맞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됩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 합의되었던 ≪10.12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백지화함은 생화학무기, 인권, 종교문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9.11 테러사태 이후 반테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북이 12개에 달하는 반테러협약에 가입하자, 이번에는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와 그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테러근절을 앞세워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찰 및 감축이라는 무장해제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의 제네바합의 이행여부를 보증하지 않겠다고 선언, 제네바 합의 파기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북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소의 IAEA방문과 관측을 허용해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경수로 관련 고위관리자 20명이 남측 원전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제네바합의를 꾸준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경수로 사업완료와는 무관하게 특별사찰 문제를 들고 북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북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첫째는 북미합의에 대한 원칙적 요구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평화여론 조성이고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와 단결의 활성화입니다.

우선 북미합의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이북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미국에 합의 파기냐 이행이냐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권한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고 선언한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북미간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북 역시 핵, 미사일 동결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은 12개의 반테러협약에 모두 가입하여 테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한편, IAEA의 일반사찰을 허용해 제네바 합의이행도 가시화 하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방면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북이 민족대단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북의 이러한 노력은 지금껏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자≫는 기본정신 아래 민족대단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 이북은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의 지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준비되어 있는 ≪아리랑축전≫ 구상 시기가 2001년 초반이라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이 시기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노골화된 시점이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일정하게 관철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아리랑≫을 그 주제로 하여 10만 여명이 동원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구상했다는 것은 민족적 단결과 단합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북은 전세계에 ≪아리랑축전≫ 홍보 및 조청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남에서의 폭넓은 참가를 위해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동원 특사 파견도 ≪아리랑축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분석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리랑축전≫ 자체의 의미가 대규모적인 관광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을 화두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의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돌을 맞는 올해, 우리 민족은 중대한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북은 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는 이북의 ≪어서오시라, 평양으로≫에 화답할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세계 만방에 평화의 의지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유감없이 호소할 준비에 한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아리랑≫은 연대와 대동정신을 기조로 하는 잔치

≪인터뷰≫ (사)한민족아리랑협의회 김연갑상임이사

김연갑(48)씨, 그가 올해 4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남쪽의 아리랑을 들고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2일, 인사동 사무실에서 그의 아리랑 사랑과 북측이 준비하는 ≪아리랑≫축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올해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먼저 이북은 단군과 아리랑을 주체 예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자의 핵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위상을 확보한 8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가졌고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이 **김정일**위원장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89년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단일팀 단가를 아리랑으로 합의했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도 의전음악과 환영음악을 아리랑으로 했으며, 조명록 특사가 미국을 방문할 때도 그 악보를 휴대하고 이북의 군부가 아리랑을 연주했다. 따라서 ≪아리랑≫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북측 행사에 대해 언론들이 ≪첫 태양의 노래≫에서 ≪아리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아리랑≫이 준비되어 왔으며 2000년 창군 55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도 통일경축아리랑과 장사익이 부른 안기영 작곡의 아리랑이 불리워졌다. 이미 중요한 무대에서 아리랑을 정책적으로 써 왔고 **김정일**위원장 혼자 주장할 리가 없다.

이북은 이전에는 아리랑을 투쟁정신에다 가치의 중심을 뒀다. 일제에 저항했다, **김일성**주석이 빨치산을 할 때 아리랑과 함께 했다는 등 ≪민족과 운명≫, ≪피바다≫, ≪밀림아 이야기하라≫에 나오는 아리랑은 모두 투쟁적이고 계급혁명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2000년부터 아리랑에 대한 인식이 연대와 대동으로 바뀌었다. 아리랑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다 아는 것으로 우리 예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려야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측이 김대통령이 왔을 때 자기네 애국가를 연주할 수 있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해 관현악곡 아리랑으로 막을 올려 예우했던 것은 엄청난 변화다.

또한 2000년 8월 평양국립관현악단이 남한에 왔을 때 남측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관현악곡 아리랑을 첫 곡으로 연주했다. 이는 대단한 자부심이다. 남측이 세계화시킨 사물놀이는 설령 세계화 됐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와 미국에서는 따라할 수 없다. 그러나 악보만 주면 전세계 누구나 관현악곡 아리랑은 연주할 수 있다. 이 곡은 76년 최성환이 공모에서 당선한 곡인데 10년여에 걸쳐 2명의 작곡가가 다듬어 서양악기에 장새납 등 우리 개량악기를 배합시켜 탄생시킨, 전세계에 유일한 ≪민족 배합 관현악곡≫

이다. 그리고 이것을 연주한 것은 ≪배합 관현악단≫이었다. 이것은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형식이다.

이번 ≪아리랑≫은 연대와 대동의식이고 대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정말로 남측이 와달라는 뜻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잔치론이다.

월드컵은 남한이 이북의 적인 일본과 미국의 힘에 의해 치르는 잔치다. 내 형제의 적과 하는 잔치이니 형제간에 약올리는 잔치다. 따라서 북에게 ≪와라≫ 할 때 선뜻 오기 어렵다. 북이 그런 잔치에 ≪아리랑≫ 잔치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나. 월드컵은 우리의 주체적 잔치는 아니지만 ≪아리랑≫은 규모는 몰라도 주체적 잔치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잔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리랑≫ 잔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리랑≫이 연대와 대동정신을 기조로 하는 잔치라고 한다면, 우리 정서상 이웃집 잔치에 있는 것 없는 것 털어 부주돈 만들어 참여해야 한다. ≪아리랑≫의 내용과 목적 이전에 우리 이웃집 친척 잔치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사)한민족아리랑협의회에서는 북측의 ≪아리랑≫에 어떻게 참여하나?

◎ 이북은 ≪아리랑≫ 기간에 춘향전, 피바다 가극은 물론 평양주변의 관광코스 등을 패키지로 할텐데 그 사이 사이에 밀양, 진도, 정선, 인제, 강릉, 영천 등 전통 아리랑도 가서 선보이겠다. 이북 주민과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분단이전의 전통가락으로 아리랑을 들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3개월 전에 우리의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제안을 했으며 아직은 반응이 없다. 북측의 요청이 있다면 전국 지회 회원들과 참여하겠고 54회의 아리랑 공연에 전부 참여할 예정이다. 120명의 아리랑 예술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선발대로 61명이 갈 예정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며 갈 예정이다.

통일뉴스 2002/04/02

F-X의혹 반드시 규명한다

27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가져

F-X 사업의 1단계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오전 10시 자통협,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79개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국방부의 F-X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반대 움직임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F-X공동행동은 국방부, 정치권, 대통령에 대해 △F-X평가내용 공개 △F-15K 내정철회와 추가평가작업 중단 △F-X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 △F-X예산동결 △F-X기종선정 일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 등 총 7개항의 요구를 발표했다.

F-X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조주형 대령의 외압폭로로 국민의 의혹이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평가기준과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F-X기종결정을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F-X공동행동은 ≪F-X선정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조직적인 압력이 행사되었고 F-15K가 사실상 선정된 것에 주목한다≫며 ≪대다수 요소에서 다른 기종들보다 열세인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이 선택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F-X공동행동은 ≪F-X사업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와 자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새롭게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9시에 대표자 회의를 열고 4월 한달 동안 F-X의혹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역별로 전개하는 한편, 4월 10일 서울역에서 범국민공동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바로 서울 YMCA앞에서 F-X 외압의혹 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 김기덕(26, 한양대)씨는 ≪이번에 F-15K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F-X사업이 국민과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기종이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F-X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F-X공동행동은 이날 273개 단체가 참여했지만, 향후 F-X공동행동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F-X사업을 둘러싼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03

미완의 협상, 발전파업은 진행형

발전소 합의문 두고 정부와 노조 의견 엇갈려

민주노총과 정부가 2일 오전 정부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합의문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해석이 엇갈려 갈등이 예상된다.

합의문 중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준과 민영화 관련 조항이다. 발전노조측은 노조원 징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적정한 수준≫은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조원전원 해고를 철회하고 2천명 해고로 축소해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

발전노조는 지난 2일 협상 당시 해고된 3백42명의 노조원중에는 각 지부 간부까지 포함되있다고 밝히고 징계수준을 위원장과 본부 간부선까지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정확한 징계수준을 밝히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민영화관련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파업을 마무리하는 논의에서 민영화 문제를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민영화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며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강행한다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발전노조에 교섭권을 위임받아 정부와 협상을 벌인 민주노총도 3일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민영화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민영화를 동의했다거나 단체교섭에서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은 정부의 초 강경대응에 대해 전력대란을 풀기 위해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김대중대통령 임기 내에 발전사 매각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과정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 각층 원로와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전소 매각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내에 국가기간 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노조 ≪우리의 농성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발전노조(위원장 이호동) 집행부는 3일 오후 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타협안을 자의적으로 해석, 발전노조원과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 반영 없이 발전소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발전노조는 언제든 다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동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발전소 매각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이끌어 낸 것과 발전소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고 이번 파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2일 타결된 협상안을 노조가 발전소 민영화 반대 입장을 포기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부분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문은 결코 노조가 민영화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하듯 발전소 민영화 포기가 아닌, 이번 파업과 관련한 교섭에서 발전소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영화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전소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다시금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동참한 발전노조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발전소 매각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발전소 매각 ≪저지≫를 위해 파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대신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이 협상을 받아들인 집행부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발전노조원들은 5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지부별로 이번 합의문에 대한 토론과 찬반 투표와, 현재 집행부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발전노조 집행부 일부는 명동성당에 그대로 남아 정부와 사측의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지켜보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발전노조원들과 노동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정 합의안에 대한 책임지고 임원진이 총사퇴하기로 했다. 사퇴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도 이날 임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옥/김윤희 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03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5권의 ≪국내당공작위원회≫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박달은 내가 내오려고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가 장차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 . . 국내당공작위원회는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국내당조직건설을 맡아보게 될 지역적 지도기관이다. 통일적 영도기능을 수행하는 참모부가 없는 것으로 하여 국내운동은 지금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이라는 두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결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맡아 수행할만한 지도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지도기관이 바로 국내당공작위원회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면 우리는 여기에 박달동무를 망라시키려고 한다. 박달동무가 이런 위원회가 파견하는 국내전권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국내각지에 널려있는 투사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에는 박달동무가 이제 돌아가서 우선 함남북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운동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국내당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 . .

박달은 내 말을 듣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정말 과분한 믿음이올시다. 제가 그럴만한 재목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박달의 솔직한 고백은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혀주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를 책임자로 하고 김평과 박달을 위원으로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박달은 이 위원회의 현지집행인으로서 갑산지방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할 임무를 지니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상교시를 통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달동지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무엇이고 오늘의 국내당공작위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원장은 누구인가.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69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은 조선혁명에서의 차지하는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 보며 새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 . .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올해 한민전은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다음과 같은 신년축하문을 올리었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장쾌한 해돋이가 제주도 끝까지 온 3천리를 밝히며 불러오는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참말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빛내어 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고 걸출한 수령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 . .

새해에 우리들은 백전백승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각계 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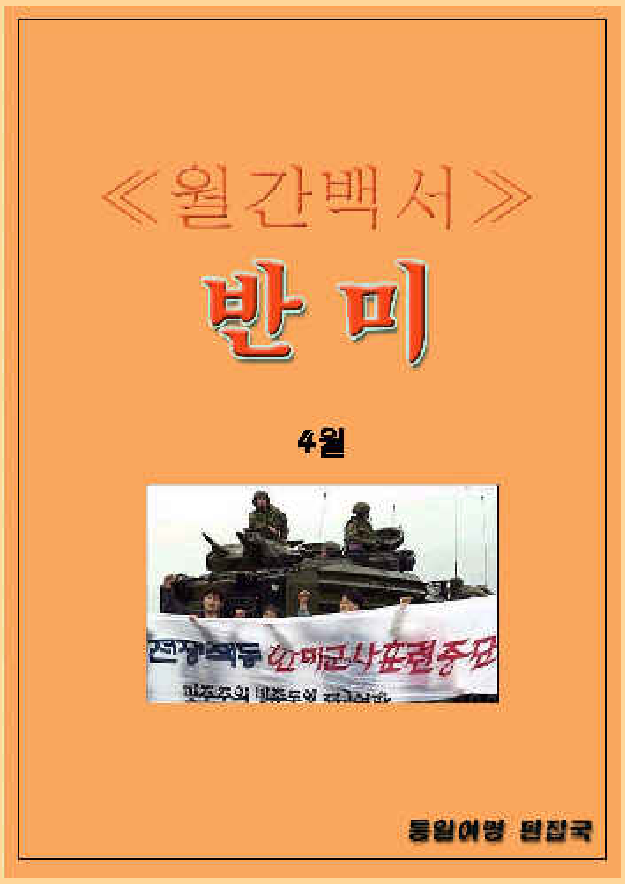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와 올해 한민전신년축하문은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업적을 높이 찬양하며 **김정일**장군님을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높이 추앙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의 통일혁명을 진두지휘하시는 최고영도자임에 틀림이 없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70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

광고

≪월간백서≫ 4월호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방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5권의 ≪리제순≫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제순동지 － 필자 주)는 국내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늘 농조조직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지도가 없이는 국내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물론 그 주장은 많은 동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혁명군의 줄을 어떻게 찾겠는가고 하면서 그 주장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라도 유격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백현 신흥촌으로 단호히 이주하였다.

그는 국내인사들 가운데서 해외의 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의 불가분리성과 일원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리공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군과의 연계를 성사시킨 다음에는 우리의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생명까지 바친 선각자, 투사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5권의 ≪불굴의 투사 박달≫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내세운 전략적 과업은 한편으로는 국내에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책원지, 비밀거점을 꾸리는 것이였으며 다른편으로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을 마련함으로써 자력광복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였다.

국내에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꾸리는 사업은 조국광복회망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과 함께 국내에 강력한 당조직망을 꾸림으로써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항일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아 벌이려고 하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활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중심고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의 통일혁명투쟁이 급격히 고양되고 전민족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주체 90(2001)년, ≪대표집필자 최성원≫의 명의의 논문,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하 ≪이론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발표되었다.

≪우리들은 북측의 혁명무력과 남측의 대중투쟁력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무력과 근로대중의 반제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의 동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일치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일치성이 곧 조직적 실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측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혁명적 당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을 영도하는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은 조직적 실체로 결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해야 남측에서 지역혁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조직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론문제≫는 북측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혁명적 당과 남측의 반제투쟁을 영도하는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의 조직적 결합에 대한 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방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적 결합이 범민련식의 통일전선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민주운동역량 전체와 북측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결국 민족민주전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과 남의 변혁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방도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역사적 경험은 단순명쾌하게 그 방도를 가르쳐 준다. 역사적 경험이 가르쳐주는 그 방도는 무엇인가.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68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조국통일3대헌장

90년대통일에로 (1)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의 통일대강에 기초하여 밝히신 90년대 통일시간표는 7천만 온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분에게 있어서 90년대 통일시간표는 하나의 선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강철의 의지이며 금석의 신념이였다.

90년대 통일에 대한 그분의 의지를 엿볼수 있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1990년 9월 제11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에 출전한 쌍방선수들에 대한 공동응원문제가 실현된 다음 남북축구경기실행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이때 이남당국자들은 그 명칭을 8.15전에 있었던 ≪경평축구경기≫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쓰자고 하였다. ≪경평축구경기≫란 식민지시대의 경성(서울)과 평양팀사이의 경기라는 뜻이였다. 여기에는 서울과 평양 체육인들의 친선이란 의미와 함께 서로 승부를 겨룬다는 뜻도 깔려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부터 쓰던 이름인만큼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북남축구경기≫라고 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이 문제에 관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때에 쓰던≪경평축구경기≫라는 이름을 그대로 되살려쓰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90년대통일의 견지에서 볼 때 통일지향적인 의미가 없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기운만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그 명칭을 ≪통일축구경기≫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통일축구경기≫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겨레의 통일열망을 담은 이 명칭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량측 협상관계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였다.

근 반세기만에 있게 되는 북남축구경기가 ≪통일축구경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이 매스콤을 통해 공개되였을 때 온 강산은 삽시에 조국통일의 열풍으로 설레이였다.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은 통일축구란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에 꼭 드는것인가. 축구경기도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통일의 뜻을 담고 하게 되니 정말 심장이 동하고 눈물이 쏟아진다. 이제 통일은 가까운 앞날의 것이다. 아니 체육인들사이의 통일은 실현되였다고 하였다.

그분께서는 이해에 겨레의 90년대통일지향을 담아 북남축구경기와 함께 범민족음악회를 열도록 하시였다.

이해 12월 ≪90송년전통음악회≫를 서울에서 가지는 문제가 상정되였을 때 그분께서는 이 음악회의 목적과 의의를 조국통일과 련결시켜야 하며 90년대 첫해의 년말을 통일열기로 장식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명칭을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로 하도록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열린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서는 이북의 예술인들이 우리 민족음악의 우수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이남민중에게 조국은 하나이고 민족도 하나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이런 민족화해의 분위기속에서 다음해 봄에는 분단이래 처음으로 북남단일팀이 탄생하여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하나된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계속)